

11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벌하셨습니다



배울 말씀	사도행전 4:32-37, 5:1-11
읽을 말씀	사도행전 5:3-4
외울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 12:22).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포인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함을 안다. ②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11과, 말씀마당 그림책 11과(가림막, 별지 11과), 어린이용 교재 11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11과, 나무젓가락, 투명 테이프

설명

견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 시작된 초대 교회의 고난은 교회의 확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초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사도들을 옴아매는 것으로, 사도들은 두 차례 투옥을 경험하게 된다(행 5:18, 12:4). 두 번째 공격은 교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해치는 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공격은 교회에 내분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리파 과부의 공궤를 둘러싼 성도들의 분란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과에서는 그중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순수한 섬김이 있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현금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 순수한 성도들의 섬김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욕심이 생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만 내놓은 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현금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땅을 판 돈 전부를 드린다고 속인 점이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했고(행 5:4), 아나니아는 사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리고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섰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그 돈이 땅을 판 돈 전부인지 물어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삽비라 역시 거짓을 말하여 결국 사도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진다. 거짓말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짓을 말한 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신 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외식’이라는 거짓을 흔히 범한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함과 진실함을 버리고 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경건한 겉모습을 내보이거나 경건한 마음을 가진 듯 행동하는 것 모두 ‘회칠한 무덤’(마 23:27)과도 같은 외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거짓이 있으면 교회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훼손된다. 그리고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만다.

1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함을 알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자.

생각마당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생각마당 시각자료 11과를 접어둔다.

GO!



(시각자료를 접은 채로 보여주며) 여기 나무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인형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대답을 듣고) 이 인형의 이름은 ‘피노키오’예요.

그런데 피노키오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접은 부분을 펼치며) 피노키오의 코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피노키오의 코는 왜 길어졌을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면 어떤 것 같나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사도행전 5장 3-4절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은 후, 말씀마당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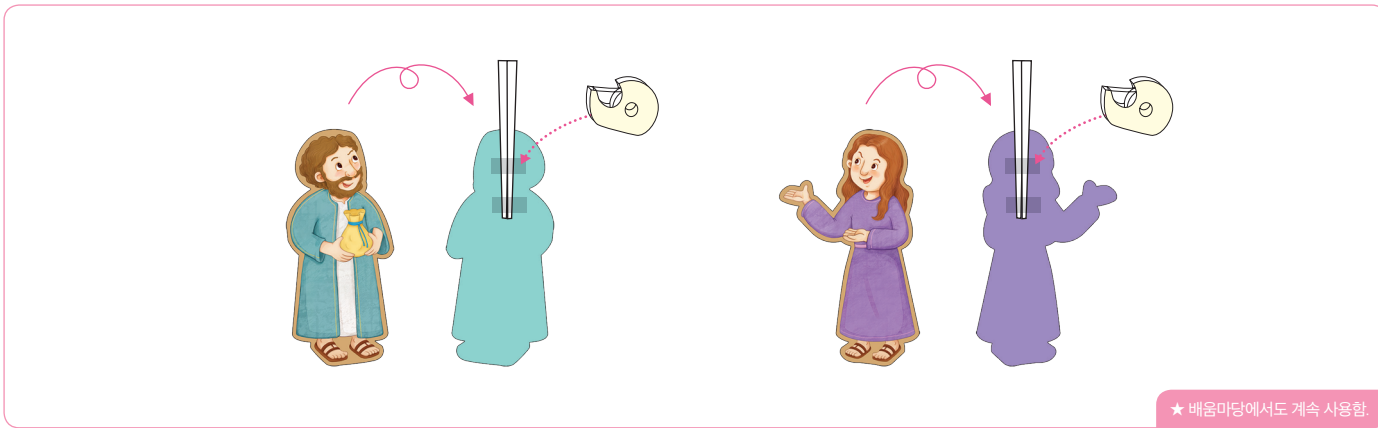
읽을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말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 그림책 가림막을 준비한다.
- ③ 말씀마당 그림책 별지 3에서 11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안내된 방법에 따라 준비한다.



★ 배움마당에서도 계속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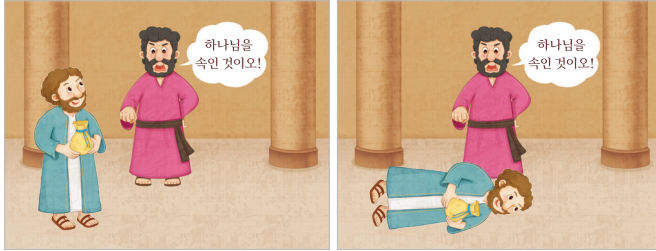
GO!



(11-1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잘 믿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옷을 주는 사람들과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발이나 집을 팔아 얻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을 말해요. 사도들은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돕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여주며)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 얻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을 보니, 아나니아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아나니아’를 흔들며) ‘이 돈을 모두 주기는 아까운걸! 내가 쓸 돈을 좀 남겨야겠어.’ 아나니아는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두었어요.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돈을 감춘 것을 알고 있었지요.



(11-2를 보여주고, '아나니아'를 베드로 쪽으로 움직이며) 아나니아는 남은 돈을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져갔어요. ('아나니아'를 흔들며) "제 땅을 팔고 받은 돈을 모두 가져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화난 목소리로) "아나니아, 당신은 왜 땅값 얼마를 떼어놓았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행 5:3-4)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를 앞으로 쓰러뜨리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나니아'를 다른 곳으로 치운다.)



('삽비라'를 베드로 쪽으로 움직이며) 얼마 뒤, 삽비라도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뿐이오?"
(‘삽비라’를 흔들며) “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으로 받은 돈을 모두 드렸나요? (대답을 듣고) 아니에요.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삽비라'를 앞으로 쓰러뜨리며) 하나님을 속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지요. ('삽비라'를 다른 곳으로 치운다.)



(가림막으로 11-3의 '교회 앞 어린이들'을 가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여주며)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한 그들에게 큰 벌을 주셨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함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예요.



(가림막으로 11-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리고, '교회 앞 어린이들'을 보여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해요.

배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에서 사용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준비한다.

GO!

㉞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1. (11-2의 베드로 양옆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놓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값으로 받은 돈에서 얼마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2. (11-3을 보여주며)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죽었어요.)

㉞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큰 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함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요.)

3.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 언제나 정직해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tip

어린이 수만큼 어린이용 교재와 스티커지를 미리 뜯어 안내된 방법에 따라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11과를 뜯어, 돌림판을 안내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둔다.
- ② 어린이용 스티커지 11과를 뜯어둔다.



① 돌림판 아랫면 가운데에 있는 두 고리를 접어 올린다.

② 돌림판 윗면을 끼우고, 고리를 아래로 내려 고정한다.

GO!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돌림판과 어린이용 스티커지를 나누어준다.)

1. 돌림판의 그림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① (돌림판을 돌려 ‘아빠에게 거짓말하는 어린이’를 보여주며) 돌림판을 돌려 이 그림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주고) 겁을 깨뜨린 어린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말했던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왜 거짓말을 했나요? (혼날까 봐 겁이 나서요.)

우리는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잘못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예요. (‘거짓’ 스티커를 ‘아빠에게 거짓말하는 어린이’ 위에 붙이며) 저를 따라 ‘거짓’이라고 적힌 스티커 한 개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요. / 용서를 구해요.)

(물음표 칸을 열어, ‘아빠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어린이’를 보여주며)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하고 숨김 없이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예요.

여러분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고 다짐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정직’ 스티커를 ‘아빠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어린이’ 위에 붙이며) 그렇다면 저를 따라 ‘정직’이라고 적힌 스티커 한 개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돌림판 윗면의 문장을 가리키며) 다 붙인 어린이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② (물음표 칸을 덮고, 돌림판을 돌려 ‘인형을 숨기는 어린이’를 보여주며) 돌림판을 돌려 이 그림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주고) 인형을 뒤에 숨긴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 하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형을 혼자 다 가지고 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혼자 다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이렇게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예요. (‘거짓’ 스티커를 ‘인형을 숨기는 어린이’ 위에 붙이며) 저를 따라 ‘거짓’이라고 적힌 스티커 한 개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D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을 자주 하나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분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신이 속인 사람에게도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형을 나누어주어요. / 인형을 함께 가지고 놀아요.)
(물음표 칸을 열어, '인형을 건네는 어린이'를 보여주며) 우리는 "여기 있어!" 하고 숨김없이 말하고 친구와 인형을 나누어 놀아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예요.

여러분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고 다짐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정직’ 스티커를 ‘인형을 건네는 어린이’ 위에 붙이며) 그렇다면 저를 따라 ‘정직’이라고 적힌 스티커 한 개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돌림판 뒷면의 문장을 가리키며) 다 붙인 어린이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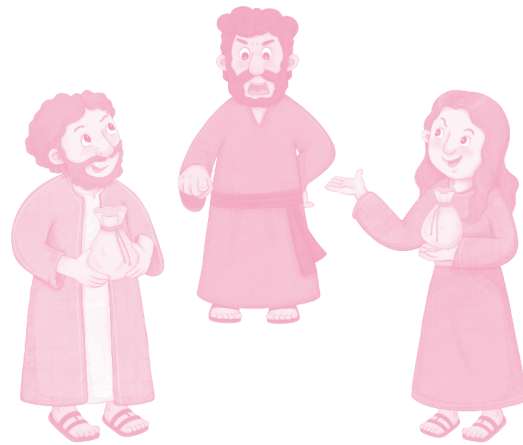


2. 배운 내용을 정리한 후, 기도로 마친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못을 숨기고 싶거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